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다시 선임해야”

### 참여자치21 “김 후보자, 시민단체 활동 시 횡령 의혹”

#### 이용섭 시장 ‘보은 인사’ 지적·인사기준 개선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19일 시민운동 활동가 출신인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 교체와 인사기준 개선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강열 이사장 후보자는 시민의 상식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 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김 후보자는 시민 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3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펼쳐왔기 때문

에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시 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고, 김 후보자의 답변 역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밝혀진 바로는 김 후보자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 생활환경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 단체는 김 후보자와 그 아내의 은행 계좌에 각각 2600만원·1억900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은 오라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 의회는 적격·부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한다”며 “이는 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용섭 시장의 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시 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 모두 이 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인사가 만사다 이 시장이 반복되는 인사 잡음으로 시

민 신뢰를 잃는다면 민선 7기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인사 기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임 당시 6년 간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말 바꾸기 논란도 일었다.

시 의회 인사특위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특위 결과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시와 시 의회 간 업무협약에 따른 권고 수준으로, 보고서 수용 여부는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이 결정한다.

서은홍 기자

## IS “뉴질랜드 반이슬람 테러에 보복”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부 하산 알무하지르 IS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44분 분량의 음성 녹음 파일을 통해 “뉴질랜드 2곳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대학살 장면은 비보같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고, 칼리프(이슬람제국의 지지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50명이 사망한 뉴질랜드 테러에 대해 IS에 반대하는 이슬람 말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주동안 진행중인 시리아 IS 거점지역에서의 폭격에 비유했다.

그는 “이곳 시리아 바그다드 지역에서 알려진 무기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대량 살상무기에 의해 공격당해 이슬람교도들이 불 타 죽고 있다”며 “이곳은 혼란과 모순의 상태이며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승리를 관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이 지난달부터 IS 소탕작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IS세력은 마지막 거점 지역인 시리아 국경지대 바그다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다.

## 印尼 홍수 사망자 89명·74명 실종 상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89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전히 74명이 실종 상태라고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 파푸아주 자야푸라에서 수일 간 계속된 폭우로 지난 16일 밤 큰 홍수가 발생해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와 교량들이 파괴됐다.

수토포 푸르위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재난완화국 대변인은 지금까지 89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59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84명이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이 계속될 수록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실종된 가운데 중장비 부족으로 군인들을 주축으로 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푸아주 군대변인 무함마드 아이디 대령은 말했다.

## 호주 숙박공유서비스업소 살인범 11년형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제공하던 남성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 살해해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BBC가 보도했다.

18일 호주 법원은 2017년 10월 30대 숙박객을 살해한 혐의로 제이슨 콜턴(42)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콜턴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명의 동거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심하게 폭행 했으며 “악랄하고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210 호주달러(약 16만8000원)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3일간의 숙박 기간을 일주일로 연장했던 피해자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콜턴과 갈등을 빚었다.

## 인도네시아, 737맥스8 자국 운항 영구금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0월 자국과 지난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잇달아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사 737맥스8 기종에 대해 영구적으로 운항금지하기로 했다.

부디 카르야 수파티 교통부 장관은 18일 “비 연방항공청(FAA)이 국제 지속감항성통지(CANC)를 통해 737맥스 기종의 안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진 이후 지난 14일부터 맥스8에 대한 영구적인 운항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수파티 장관은 “이번 영구 운항중단은 FAA의 권고 사항과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가 진행한 보잉 737맥스8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737맥스8 기종을 보유한 라이온에어와 가루다항공도 이번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737맥스8 항공기는 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189명 사망자를 낸 라이온 에어에서 13대, 가루다 항공에서 1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같은 기종인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737맥스8이 추락해 157명이 사망했다.

## 오늘 봄철 화재 대비 전국 대피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중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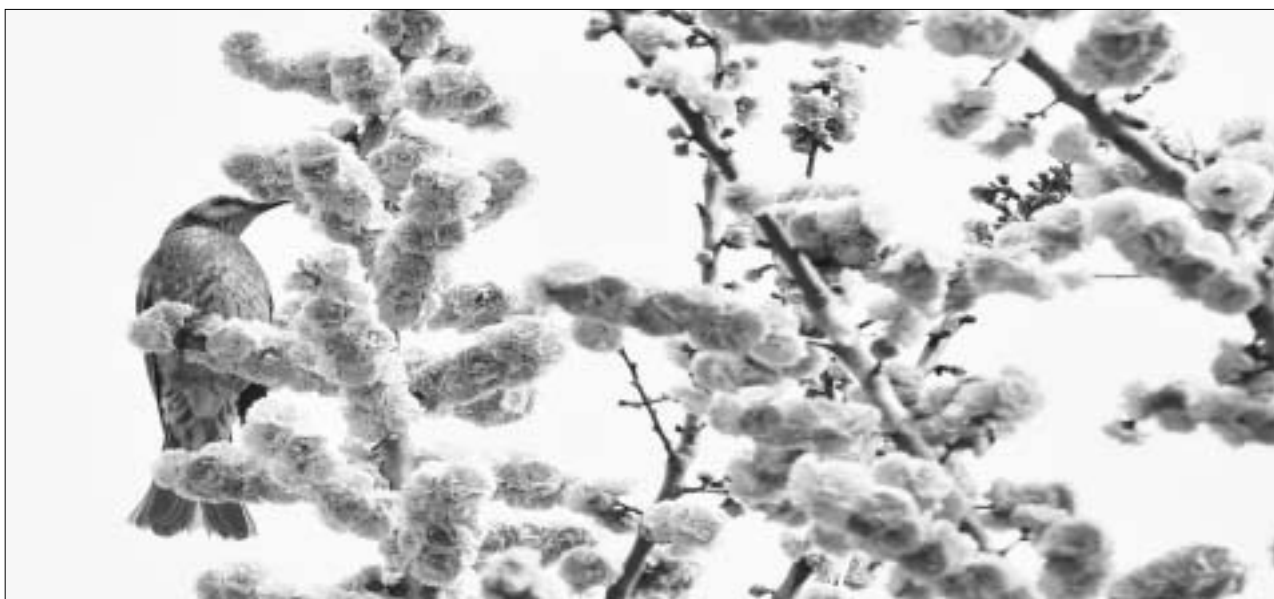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이 29.3%로 가장 많았다. 겨울은 27.9%, 여름은 21.9%, 가을은 20.9%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20분 동안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학교 2만832곳, 장애인 시설 618곳, 요양병원 223곳, 다중이용시설 1038곳이다. 주요 훈련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다.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시설 관리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대처 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교통정보용 전광판과 버스정보용 전광판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해 화재 훈련 상황을 전파한다.



직박구리의 간식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시교육청에서 직박구리 한마리가 꽃망울 터뜨린 만첩홍매화 가지에 앉아 꿀을 먹고 있다.

## 현직 대학교수, 저서 구입·부인 강사 채용 ‘논란’

현직 대학교수가 재학생들에게 수업 교재를 사실상 강매하고, 부인을 같은 과 시간강사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대와 일부 재학생들에 따르면 외국어대 소속 A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2만원 상당의 책을 서점이 아닌 화과실에 비치한 뒤 학생들에게 구매토록 한 뒤 오픈북책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시험을 보는 행위)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 사실상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반발을 샀다.

학기당 수강생은 350~400명에 달하며, 학생들은 “A교수가 집필한 책을 사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해당 교재를 반드시 구매해야만 했고 환불도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320여권(시가 640만여원)의 책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부인 B씨를 시간강사로 학교 측에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자신이 맡은 교양 선택과 교양 필수 과목 중 일부를 아내가 맡도록 했다.

B씨는 2009년부터 ‘국제관공의 이해’라는 수업을 맡아오던 중 2017년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자 지난해 해부터 남편이 맡아오던 ‘세계 문화의 이해’ 시간강사 모집에 응시해 채용된 뒤 해당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과목은 분야가 서로 다른데다 수강생 부족으로 강좌가 폐강된 B씨가 남편인 A씨 학과 강의를 맡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A교수는 “교재 판매는 교수 개인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당 3000원씩 싸게 판매한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된 뒤 학과실 판매를 중단하고 구내 서점에서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인 채용에 대해선 “공제에 지원하지 않고 아내만 단독 지원해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며 “아내가 관련 과목 박사학위 수료를 마쳤고 수업 커리큘럼은 주간교수의 고유권한이라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본부 측은 A교수의 교재 강매와 부인 채용 논란과 관련, 전달 관련 부서 대학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